

강령

- 우리는
1. 교육의 자주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1. 교육의 주체자로서 학부모의 교육권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1. 자녀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풍토를 조성한다.
 1. 민주·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여러 단체와 연대한다.

학부모신문

학부모의 올바른 교육참여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바탕이 됩니다.

발행인: 김완자 편집인: 조봉호 발행일: 매월 5일 발행처: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14 당일빌딩 301호 전화: 전국 02-675-9068 (FAX: 02-675-9068, 천리안 ID HAKBUMO) 서울 02-634-6508 02-634-4359 (FAX: 02-634-4359) 충주 0441-42-1217 군산 0654-42-5310 부산 051-247-1795 (FAX: 051-246-1628) 전주 0652-231-6242 인천 032-525-8342 광주 062-526-6992 (FAX: 062-529-1552) 마산 0551-43-6496 (FAX: 0551-43-6496) 대구 053-781-3911 동해 0394-33-7784 이리 0653-856-0340 울산 0522-46-0677 여천 0662-82-1221

고교 석차제 폐지

96년부터 과목별 성취도만 기록

국교와 중학교에 이어 96년도부터 고교에서도 시험성적에 따른 학급 및 학년별 석차가 사라지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제 6차

교육과정 개편(국, 중학교 95년, 고교 96년 적용)에 맞춰 새로 적용될 유치원, 국, 중, 고교의 생활기록부 서식 및 취급요령을 훈령으로 발표, 성적에

따른 서열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교에서도 학급 및 학년 석차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교 생활기록부에도 수위미양가의 등급에 따른

과목별 성취도만이 기록되며, 다만 현행 대학입시에 전형자료로 쓰이는 계열별 내신 백분율은 생활기록부의 여백에 고무인 등을 이용해 표기하게 된다.

교육부는 대신 앞으로 고입 및 대입전형에서 내신자료의 활용도가 커지게 됨을 감안, 중·고교 모두 교과목별로 특기사항란을 신설해 특정과목에 대한 개인의 장단점을 해당과목 교사가 기록하도록 했다.

국교의 경우도 3~6학년은 6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학교

나름대로 교육내용을 융통성있게 선택,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재량시간란」을 신설하였고 종전의 교과학습 발달상황란의 「특기사항란」을 「종합의견란」으로 기술하게 했다.

중학교는 기존에는 교과별로 5단계 평가와 학년별로 특기사항만을 기술했으나 교과목별로 특기사항을 기술할 수 있게 했으며, 고교는 종전의 학급석차와 학년석차제를 폐지하여 생활기록부상의 성적서열화를 지양했다.



- 국민학교 학교급식 시설 예산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 -

11월 4일 서울 YMCA 앞에서 여성단체연합과 전교조, 인간교육 학부모연대 등 5개 단체와 함께 가두서명을 벌였다. 지난 10일까지의 서명용지는 수합하여 국회 청원자료로 쓰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98년 서울 지역 무시험 전형
내신 봉사활동으로 전형

내년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첫 적용되는 98학년도 서울지역 인문계 고교 무시험 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 지침이 확정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7일 98학년도 인문계고교 신입생 전형 때 반영될 중학교 내신 성적을 교과성적 2백40점(80%), 출석성적 12점(4%), 행동발달성적 12점(4%), 특별활동성적 12점(4%), 봉사활동 성적 24점(8%) 등 모두 3백점 만점으로 결정했다.

교육청이 발표한 성적산출지침에 따르면 교과성적의 경우

학생들의 중학교 교육과정 적응기간을 고려, 1학년 성적은 배제하고 2, 3학년 성적만 반영하되 2백40점만점에서 2학년 96점(40%), 3학년 1백44점(60%)으로 정해 3학년 성적에 20%의 가중치를 부여했다.

특히 이 제도는 교과성적에 치중해온 기존 입시제도에서 탈피, 봉사활동 표창학생, 효행상 등 수상학생, 학급 특별활동 우수학생 등에게 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성 전인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요기사

- 3면 현대여성과 자녀
- 4면 실업계 고교 진로 정보
- 5면 인천·안양지역 고교부족
- 7면 미래의 유망직종 — 분장사

“올 겨울방학을 의미있게 보내기 위한 선물”

웅진출판주식회사

전화 (02)771-6981~4
FAX (02)771-6984



① 어린이마음

기본서 12권, 스스로해보기 12권, 어머니 책 12권, 동화책 세트 3개/어린이들을 위한 참사랑과 교육의 길잡이



② 한국전래동화

전40권, 카세트테이프 20개/우리 겨레의 굳은 품성과 정서가 깊게 배인 전래동화 모음



③ 올챙이 그림책

만 3, 4세 어린이의 인지, 감성, 바른 습관, 가치관, 통찰력 형성을 돕는 책

④ 해피토크

창작그림책 23권, 명작그림책 5권, 워크북 8권, 어머니 책, 그외 학습자료/논이를 통해 영어학습의 기초를 닦는 책

⑤ 이원수 아동문학전집

전30권, 한국 아동문학계의 큰별 이원수선생의 한 줄 한

줄 정성이 깃든 글

⑥ 윤석중 전집

⑦ 위인전기

전60권, 인명사전 2권/한국위인 30인과 외국위인 30인의 생생하고 진실한 삶의 모습

⑧ 한국의 역사

전22권/어린이와 친근한 형식인 만화, 특히 생동감 넘치는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한국사의 큰 줄거리를 흥미롭게 깨우치게 하는 역사 만화책

⑨ 세계의 역사 24권

전84권/과학적 탐구심과 학습의욕을 길러주는 심오한 과학의 세계

⑩ 과학앨범 84권

전80권/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사는 지혜를 일깨워주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생태 사진집

⑫ 까치잡지(월간)

월간잡지, 살아 숨쉬는 자연에 대한 생생한 사진과 흥미로운 읽을거리, 호기심 많은 어린이를 위한 우리나라 최고의 자연생태 전문지

⑬ 문제풀이 세계명작

41권/프랑스 갈리마르 출판사 동시출판, 명문대학 수험생들의 논리학습 필독서

⑭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27권/우리민족의 오천년 문화와 사상 모두가 담긴 스물일곱권의 '문화대서관'

⑮ 달팽이 과학동화

기본서 12권, 스스로해보기 12권, 어머니 책 12권, 동화책 세트 3개/어린이들을 위한 참사랑과 교육의 길잡이



사설

실종된 교육 개혁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포된 올 한해는 새해 벽두부터 온 국민의 관심이 교육개혁으로 쏠린 한 해였다. 설문조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할 분야로 교육계를 꼽은 우리 국민들의 교육개혁에 관한 염원은 어느 만큼이나 충족되었는가?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추진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과감한 개혁작업은 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모았고 이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염려하는 대다수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가 공언하는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만들었다. 새해들면서 정부는 교육개혁을 위한 여러 교육시책들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교육지표의 설정, 고교평준화의 단계적 해제방안, 교육개혁위원회가 내놓은 본고시 폐지건의,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영어조기 교육 및 컴퓨터교육의 실시, 월반·속진제의 도입, 사립고교의 입시선발권 부여 및 등록금 차등화 방안, 유치원·국민학생들에 대한 학원수강 허용 방침 등. 사회부문에서도 많은 시민 단체들이 교육부문을 중점사업으로 설정하고 교육개혁에 시민의 뜻과 의지를 반영시키고자 교육에 관한 공청회 등을 의욕적으로 펼쳤던 한 해이기도 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높은 소망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터져나온 상문고, 한서고 등 사립학교의 비리는 작년의 경원대 입시 부정, 국립교육평가원의 시험지 유출사건 등에 이어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교육문제의 심각성, 근본적인 교육개혁과 교육계의 사정작업의 절실함을 증폭시켰으나, 고질적 사회비리에 대한 당국의 사후조치는 애초부터 한계를 지닌 미봉책으로 일관함으로써 온 국민을 실망에 빠뜨리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잔뜩 기대를 모으고 구성되었던 교육개혁위원회가 첫번째 결과물로서 대통령에게 건의한 본고사폐지안은 현재 모든 학부모들의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사회에 환기시키는 데에는 기여했으나 다시 한번 정부의 일관성없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감만을 촉발시킨 채,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리고 이제 고교평준화를 해제하고, 사립고교에게 입시선발권 및 등록금자율책정권을 부여한다는 교육개혁위원회의 제안과 김숙희교육부장관의 이에 대한 찬성입장이 공식화됨에 따라 조만간 고교입시가 부활된다는 예상이 학생들과 학부모, 교육계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의 학원수강열풍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설정한 정부의 교육개혁의 목표는 교육재정의 확보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GNP대비 5%의 교육재정확보를 공약한 김영삼대통령의 공약은 단순히 공약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 확인해지고 있다. 지존파살해사건, 온보현사건 등이 우리 사회의 병든 교육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이에 대한 그럴듯한 대안과 적극적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교육개혁의 구호마저 점차 퇴색해가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교육개혁이 실종되어 가는 이러한 전반적 교육정세 속에서 참교육학부모회가 앞으로 떠맡아야 하는 올바른 교육운동에 대한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초·중·고 결석 허용 범위 늘려

교육부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부모와 조부모의 사망과 탈상에만 허용하던 결석허용 범위를 올 2학기부터 형제자매, 삼촌,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등까지 확대하고 회갑·결혼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사망의 경우는 부모와 조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5일, 형제자매, 삼촌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3일간 결석이 허용된다.

또 친척의 탈상과 회갑, 결혼에 참석할 경우에는 1일간 결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학생이 결석해도 출석성적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교개위, '대학개혁 정책 토론회'

교육 개혁 위원회(교개위·위원장 이석희)는 11월10일 대학교육개혁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대학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현행 각종 규제를 없앨 것을 촉구하면서 대학에 대한 지원을 담당할 별도의 행정기구를 만들것을 제안했다.

교개위는 또 현재 획일화되어 있는 대학 조직과 전공 이수학점, 교양필수 학점, 수업연한 등에 대한 규제도 없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방송 독립 공사화」를 위한 서명운동

방송개혁 국민회의는 지난 19일 열린 제6차 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인 「교육방송 공사화 입법 청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명동성당과 탑골공원 앞에서 「교육방송 독립공사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다.

교육방송은 영상매체를 통해 효과적인 사회교육의 기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불합리한 존재 위상으로 인해

기능적으로 충실할수 없었다. 현재는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전락하여 방송언론의 독립성마저 빼앗기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방송주권과 전파주권을 침해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방송개혁 국민위원회는 「교육방송공사화」를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입법 청원운동을 거쳐 필요하다면 국민적 연대 투쟁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학부모 만평

이숙자



조은일에세이

작가가 되고 싶으세요?

빵점엄마 조은일의 화려한 작가일기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몸이 불편한 아들 용걸이에 대한 아픔, 다섯 식구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는 큼지막한 문패, 무단결석한 딸과 함께 여행을 떠난 이야기 등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조은일 씨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빵점엄마 백점일기』 출간 이후 평범한 주부에서 자녀교육의 기수로, 참교육의 선두주자로, 그리고 유명작가(?)로 변화하면서 겪은 방송출연, 강연, 글쓰기, 사람 만나기 등 새로운 경험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글로 옮겼다. 문학지나 일간지에 등단한 것이 아니라 주부다운 글쓰기로 세상에 알려진 조은일 씨의 작가경험은 주부들에게 '나도 작가가 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신국판/200쪽
값 5,000원

부모를 돕는 책 시리즈

- 1 부모가 도와주는 행복한 그림그리기
아이의 그림으로 말한다
박금숙·이은순 지음
- 2 아내가 남편에게 선물하는 책
이제는 좋은 아버지가 되자
좋은아버지가되려는사람들의모임 지음
- 3 외동아이가 잘 키우기
하나 키우기 둘보다 어렵더라
기순신·함희숙 지음
- 4 부모와 함께 하는 행복한 글쓰기
우리아이 글쓰기, 이렇게 도와주자
김명숙 지음
- 5 가족신문 만들기
우리집에서도 신문이 나와요
곽정란 지음

아이와 장난감

⑥ 놀면서 배우요
문미옥 지음 <근간>

부모-자녀 관계

⑦ 자녀와 공감이 맞습니까
이혜련·김성은·이기연 지음 <근간>

영어 적기 교육

⑧ 우리아이 영어공부, 이렇게 도와주자
최진향 지음 <근간>

여성사

주소: (120-180) 서대문구 창천동 502-7 (2층)
전화: 324-1885 / 팩스: 336-1639

'95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공청회

“학교 급식 찬조금 부담 느낀다”

국민학교 학교 급식률 38.2% 현황과 문제점

국민학교 급식시설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공개 토론회가 '국민학교 학교 급식률 38.2%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지난 10일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열렸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국민학교 급식 시설 지원금이 누락된데 대한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현재 학교 급식의 문제점을 살피고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찾아보는 뜻있는 자리가 됐다.

본회를 비롯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교조 초등위원회 등의 주최로 열린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특히 본회가 전국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끌기도 했다.

전국의 국민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1백 50명을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11월

8일까지 2주일에 걸쳐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급식 비용은 매달 1만2천원~3만1천 5백원, 또는 끼니당 8백원~1천원에 이르기까지 학교별로 차이가 매우 컸다. 또 급식비용 이외에도 급식시설 수리비, 조리기구나 식기류 마련비용, 또는 기타 후원비로 찬조금을 냈다고 응답한 학부모도 현재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26개교 가운데 9개교에 달해 급식시설이 마련된 후에도 찬조금 징수가 끊이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급식시설 찬조금 징수 실태는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금액을 내는 경우보다는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걷거나 단위를 정해 내도록 하는 경우, 또 두세번에 나눠내는 경우, 지로용지를 보내 몇달에 걸쳐 모금하는 경우 등 대부분 반강제적

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찬조금 징수에 대한 반응과 액수도 지역별로 차이가 커서 학교급식 추진이 대부분 학부모의 찬조금에 의존할 경우 급식이 제일 시급한 지역인 산간벽지, 농어촌지역, 도시영세지역의 자녀들은 오히려 급식혜택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본회는 사례발표에서 나타난 학부모들의 요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정부가 수렴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무교육인 국민학교의 급식시설을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학교급식 찬

조금징수를 중지할 것.

△학교급식 후원금의 징수만을 목적으로 제정된 학교급식후원회법을 폐기하고 학부모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학교급식(운영)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보완 개정할 것.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을 위한 교육재정을 확보함으로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할 것.

△정부는 부족한 교육재정을 학부모에게 떠넘기기보다는 우리 교육을 살릴 수 있는 충분한 교육정책을 확보할 것.

(조봉호 정리)



강서남 지회 월례강좌-오숙희 여성학 강사

현대여성과 자녀



지난 11월 18일 삼성출판 세미나실에서는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강서남지회의 월례모임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빼어난 말솜씨와 수려한 용모로 아주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여성학자 오숙희씨가 강사로 초빙되어 “현대 여성과 자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오숙희씨는 생산양식의 차이에 따라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현대 여성의 삶을 규정하는 요소들을 쉽게 설

한 책임이 전적으로 어머니의 책임으로 떠넘겨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부모, 특히 어머니의 최대관심은 ‘자녀교육’이 되어 버렸다. 그 결과 교육산업은 불황을 모르고 거둬 확대일로에 있으며 더더욱 교육의 본질이 망각된 채 ‘공부’ ‘입시’ 중심의 왜곡된 교육관이 만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육의 핵심은 아이의 인성형성에 있으며,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있다. 따라서 자녀양육의 기본원칙은 각자의 개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성적이나 성격 문제 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부모와 자녀관계를 보면, 자녀의 의존도와 나이가 일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즉 0세부터 3세가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부모여야...

명하면서 앞으로의 어머니의 건전한 역할에 대해 유익한 강의를 하였다.

농업 중심의 전통사회에서 여성은 생산의 한 주체로서 생산활동을 함과 동시에 재생산노동(가사노동, 자녀출산 및 양육을 뜻함)을 담당함으로써 가정 경제뿐 아니라 국가재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존재였다. 전통사회에서도 성별 분업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공동체로서의 가족관이 지배적이어서 기존의성별분업이 한층 강화되어 여성은 주로 가사 담당자로 혹은 저임 노동력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정에 머무르는 여성의 경우는 소위 ‘주부’라는 이름으로 무능력한 존재처럼 여겨지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가사노동이 정교해지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가사노동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고 자녀양육의 책임이 더해지면서 현대 여성의 삶은 질적으로 더 힘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고학력 주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좌절된 자아실현 욕구를 자식을 통해 발산하려 함으로써 교육이 과열화되고, 여성은 곧 모성(母性)으로 인식되면서 자녀의 미래에 대

지는 완전히 부모에 의존하여 자라던 아이가 7세가 되면 점차 자아가 형성되고 사춘기를 거치면서 부모보다는 친구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되고, 성년이 되는 18세가 되면 거의 자립적 존재가 됨으로써 부모는 더이상 자녀와의 일체감보다는 괴리감을 느끼게 된다.

20년 이상 자녀를 위해 온 정성을 쏟아부은 부모는 이때가 되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를 다시 갖게 된다고 한다. 새순은 낙엽을 밟고 크듯이 자녀들은 결국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 여건의 변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시대에 뒤지지 않는 자녀양육 방법을 터득하여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부모세대 때보다 더 다양화된 사회속에서도 ‘자기’를 지키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부모 스스로가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고 소신있게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점을 힘껏 강조하면서 강의는 끝났다.

(이영미 정리)

인터뷰

이리지회 양민숙회장을 찾아서

“발로 뛰는 지회”

이것이 이리지회의 94년 표어다.

표어라는 것은 대부분 실천의 의미보다 그저 따로 놓인 말로만 느끼기 쉽다. 그러나 이처럼 실천과 표어의 말이 딱 들어 맞는 경우를 접해 보기도 처음이다.

이리의 학부모회 활동을 지켜보면 우리는 시종 “발로 뛴다”는 감탄을 했다. 조금 엄밀히 말하면 “발로 뛰는 양민숙”이었다.

학부모 신문 40호 (11월 발행)에 양민숙지회장 자신의 기고대로 요즘은 부당징수되고 있는 안전공제회비 반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리지회의 양민숙 회장을 찾았다.

「그동안 지회의 사업은 학부모회의 존립 근거가 될 만한 것이라고는 없었다.

학부모들의 권리찾기 운동이야말로 지회가 살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을, 안전공제회비 징수에 대한 우리지회의 문제제기와 언론 홍보 과정 그리고 학부모들의 반응에서 새롭게 깨달았다. 부당한 교육처사에 대해 항의해줄 수 있는 대변인이 학부모들한테는 꼭 필요한데 이 대변인의 역할로 우리지회의 방향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어떤 교육사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에 이르기까지 양민숙지회장의 일관되고 확실한 태도는 학부모회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다.

이리지회는 처음부터 양민숙씨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양민숙씨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교육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같이 나누어 볼 모임을 찾던 중 알게된 것이 학부모회였다.

그리고 91년 1월, 일단 명칭을 “자식사랑 어머니모임”으로 시작한 후 그당시 김완자 전국회장이 사무장으로 있던 전주지회와 연결을 갖고 정식 이리지회로 창립한 것이다.

이리지회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소모임이 최후까지 남아있고 또 그 소모임 꾸리기에 끝까지 주력할 계획이 있다는 것이다.

이 소모임이야말로 “발로 뛰는”지회장과 임원들의 산물이다. 다만 의식의 공유가 크게 필요하지 않아서인지 조직확보에 보탬이 되지 않는 취미 소모임(풍물팀등)의 부적합한 요소들을 재고한다면 내년소모임 활동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으리라고 장담한다.

올 한해 한 일 가운데 이리지회 사람들이 특히 못있는 것은 지회장이 그 무더위에 임원교육으로 강행하던 집단상담이다.

덕분에 임원간의 유대는 말할 것도 없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지회 회원에게 들은 말이 그 어느 말들보다 인상적이다.

「우리지회장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인간시대에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이재천 전주)

◇ 중학생을 위한 진로 정보

방치되고 있는 실업계 진로 지도

교사와 부모 책임있는 진로지도 필요

중학교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진로지도가 인문계 쪽으로만 치우쳐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대부분이 사전 지식없이 실업계에 진학하고 있다. 중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자료를 게재하여 부모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이 난을 마련했다.

중학교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진로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학생이 되면 어느 정도 자신의 미래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적성과 소질을 생각해 보는 것이 보통인데, 아직 우리 교육은 학생들을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이 3학년 올라와 2학기가 되면 고등학교 원서를 써야 하는데 그때 본인의 의사보다는 부모나 교사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다. 고등학교의 계열학과를 정하는 일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상당히 중요하다. 더욱이 한번 선택하여 그 길을 가게되면 다시 바꾸기가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

매년 9월이 되면 3학년을 대상으로 진학상담이 시작된다. 이때 학생들은 인문계 고교, 실업계 고교, 특수목적고 아니면 근로자 청소년교육기관 가운데에서 선택해야 한다.

실업계로 진학하게 되는 학생들은 체력장과 중간고사가 끝나는 10월 중순 쯤에 원서를 써야 한다. 통계에 보면 서울 및 대도시 중학교의 15~30%, 중소도시 및 군 지역의 중학교의 30~60% 정도의 학생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학교들이 인문계 중심의 진학 교육에 신경을 쓰고 실업계의 진로지도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형식적이다.

교사들에 의하면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임있게 상담지도를 하려 해도 그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교사 자신도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바른 지도가 어렵다고 한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일반적인 인식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는 학생은 성적이 나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간다는 식이다. 진로에 대한 고민없이 자신의 조건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일반중학교와 전혀 다른 교육 과정에 당황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갈등이 심해지고 자신의 취업과 진학의 두 길에서 방황하게 된

다.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닌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은 직업기술분야에서 자신의 미래를 펼쳐나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후회없이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는 상업계 고교, 공업계 고교와 농업계 고교가 있다.

◇ 상업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교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상업고교는 전국적으로 43만여명이 4백여 개의 학교에 다니며 이중 80%를 여학생이 차지하고 있다.

상업고교에는 상업과, 회계과, 무역과, 정보처리과, 비서과, 상업디자인과, 관광 경영과 등의 학과가 있다.

각 학과의 교육목표를 보면 상업과는 상업 및 경영실무를, 무역과는 국제경영과 무역업무

선택이 달라진다. 상업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격증시험에서 급수를 따는 일인데 시험은 일년에 4번 있다.

주산·부기·타자 2급 자격증을 기본적으로 따야하며 그다음 상업서예(펜글씨), 상업영어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따면 취업에 유리하다.

◇ 공업계 고등학교

공업고교는 서울에 24개교를 비롯하여 전국에 150개교가 있다. 공교에 설치된 학과는 19개(전자과, 전자계산기과, 토목과, 기계과, 디자인과, 금속과, 전기과, 배관용접과, 인쇄과, 통신과, 항공정비과, 기계과, 화학공업과, 식품공업과, 요업과)가 있는데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며 배우는 내용이 학과마다 다르다. 필수과목 5개 과목으로 이중 공업입문, 기초

에 응시한다. 기능사2급과 기능사보는 학력과 연령등의 자격제한이 없다. 검정시험은 연 2회 실시되며 필기와 실기시험에 모두 통과해야 한다.

◇ 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계 고교는 전국에 36개의 고교가 있고 4만여명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 농업고교의 학과는 작물재배와 가축사육에 대해 배우는 농업생산학과와 농업생산관련 직종에 대해 배우는 농업관련학과로 나누고 있다. 농업생산학과는 농업과, 임업과, 축산과, 원예과, 잠업과, 자연농과가 있으며 농업에 관련된 기본적인 학습(농업기계, 농업경영, 전자계산등)을 배우고 농장학습을 통하여 합리적인 경영능력과 자질을 키운다. 농업관련 학과에는 농업토목과, 식품가공과, 조원과, 농업가정과, 유통정보과, 관광농업 등이 있다. 농업생산학과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학교로 그 회사에 종사해야만 다닐 수 있다. 산업체학교는 대부분이 상업계이다. 학비는 전액이 무료이며 졸업후 전문대나 방송통신 대학에 진학하기도 한다.

·산업체 특별학급

근로 청소년들에게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산업체 주변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특별학급을 야간에 설치하고 있다. 자격은 중학교 졸업과 산업체의 근로자여야 하며 교육비 전액은 회사에서 부담한다. 전국적으로 꽤 많이 있다.

·학교형태의 사회교육시설

학교에 따라 주·야간 2천여명의 대규모 학교도 있고 반면에 주·야간 2백~3백여명의 소규모 학교도 많다. 학생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전선에 들어선 어린 근로자나, 학교의 모집광고를 보고 취업과 공부를 병행하고 싶어 상경한 경우, 때로 직업훈련 학교를 마치고 고교졸업장을 얻기위해 입학한 학생도 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 고등학교는 국·공립고등학교에 부설로 설치되었다. 전국 50개의 부설학교에 3만5천여명이 다니고 있다. 방송고는 정규 고등학교 1/7정도의 학비로 매월 격주(1, 3주) 일요일에만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며 평소에는 방송강의로 집에서 공부한다. 입학은 중졸 자격에 서류전형을 통해 허가된다. 인문계만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직업훈련원

고등학교 진학이 불가능하고 길지않은 기간에 기능훈련을 받고 취업을 해야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기관이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전국에 36개의 직업훈련원을 운영하며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훈련원, 기업체내에서 취업을 전제로 운영하는 사내직업훈련원이 있다. 훈련생에게는 교육비 및 훈련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기숙사가 무료제공되지만 매월 3만5천원정도의 식비보조금을 내야한다. 수료 후에는 취업을 알선해준다. 훈련직종으로는 선반·밀링·용접·자동차정비, 가구제작, 목조공예, 양복, 미용, 미장, 읍셋인쇄 등의 수십종이 있고 앞으로 컴퓨터관련 학과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훈련을 이수하면 90%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다.

◇ 근로자 청소년 교육기관

근로자 청소년 교육기관에는 산업체부설학교, 특급학교, 학교형태사회교육시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직업훈련원이 있다.

·산업체 부설학교



학생의 미래가 걸린 진학상담 신중히 해야

를, 정보처리과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보처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업고교에 입학하면 중학교 때와는 달리 각 학과에 따라 전문과목을 배우게 된다. 인문과목과 전문과목의 비율은 반인데 학년에 비례하여 전문과목의 비율이 높아진다. 상고에서 배우는 과목은 14가지(상업대요, 상업부기, 전산일반, 주산, 상업실천, 타자, 부기회계, 공업부기, 세무회계, 무역업무, 상업영어, 마케팅, 프로그래밍, 자료처리)가 있으며 각 학과마다 공통필수과목은 상업대요, 전산일반, 상업실천, 상업부기이며 다른 과목은 학교에 따라

제도, 기초실습은 공통필수과목이다. 선택과목은 전공학과에 따라 다르다.

공고에서는 상업계와 마찬가지로 비율로 인문계과목(국·영·수·사회·윤리 등)과 전문과목을 배우게 되며 전공과목은 과목별 교과서를 바탕으로 공학적인 기초이론을 배우고 실습기간에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기능을 익혀 나간다.

공고를 졸업하더라도 취업에 유리하려면 기능자격증을 따야 한다. 국가기술자격검정 중 공고생에게 해당하는 기능계는 기능사2급, 기능사1급, 기능장으로 구분된다.

보통 공고생들은 기능사2급

위한 교육을 하면서 농업관련 산업(농업기계 생산 및 수리, 농약제조, 농산물의 가공, 농업자재의 생산)등에 종사할 기능인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한다. 또한 농업서비스직(농산물시장 경매인, 농업금융종사자, 회원, 종묘상 등의 판매원)에 종사할 능력을 길러준다.

〈김해순 기자〉

◇ 인천 학부모회 설문조사

인천 안양 지역 고등학교 부족현상 날로 심각

고교 배정 못받아 다른 지역으로 먼거리 통학 감수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인천시내 1백44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천지역 고입제도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마치고 이를 근거로 12월 중 인천시 고입제도에 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에 의하면, 인천시의 경우 75년 이래 고교평준화가 실시된 이래, 학교간의 평준화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지만 고등학교 부족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에도 6개 고교 신설을 위해 신청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95년 고교진학에서 4천여명의 중학생이 고교진학을 포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학을 강요받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인천지역의 경우는 인천시에 수도권인구가 끊임없이 편입됨으로써 매년 중학교는 늘고 있는데도(89년에서 93년 사이에 중학교 51개교에서 63개교로 12개교가 증설) 이 기

간동안 단지 3개의 고등학교만이 신설됨으로써 고등학교의 절대적 부족현상을 빚고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인천지역 고교진학 희망자중 4천여명이 탈락되는 것에 관한 현실적 구제방안을 묻는 질문에서 학부모들은 고등학교의 신설(71.4%), 학교의 학급증설(24.5%), 고교의 학급당 인원수 증가(2.7%)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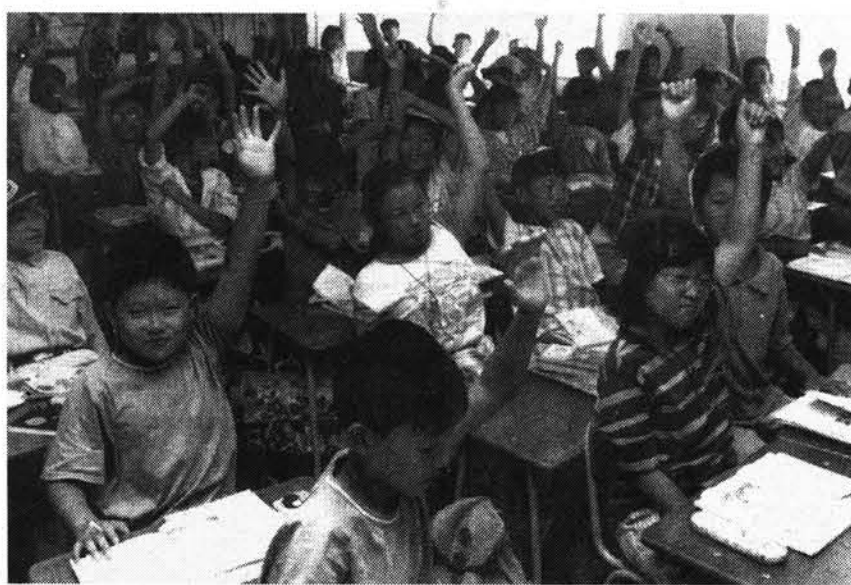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는 헌법이 모든 국민의 교육기회균등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단지 학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등학교교육에서 마저 진학을 원하는 청소년을 구조적으로 탈락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인천시에 대해 고교신설을 위한 적극적 예산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고교평준화지역이 아닌 안양시의 경우에도 지난 11월 24일 안양여성회의 주최로 교육에 관심을 가진 학부모와 여러 사회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안양시의 고교입시 문제에 관한 실태’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최측의 발표에 따르면, 안양의 경우 서울의 주택난으로 인해 수도권인구가 지속적으로 안양시에 편입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고교신설이 뒤따르지 않음으로써 안양시의 고교배정 탈락자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안양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안양시내의 고교에 배정받지 못하고 여타 경기도 지역으로 먼거리 통학을 감수함으로써 겪게되는 학생, 학부모의 불편과 고통은 대단히 심각하다고 참석한 학부모들은 털어 놓았다.

또한 안양시의 경우 고교평준화가 해체되어 안양고를 위시한 몇 인문고교에서 학생 선발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동시에 안양시내고교의 절대적 부족현상과 맞물려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교 전학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들이 입시위주의교육·톱니바퀴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참석자들은 의견을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안양, 부천의 경우



◇ 수도권 인구의 유입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60명 선을 넘고있는 한 국민학교의 수업 모습

일류대의 합격률이 높은 안양고, 부천고에 입학하기 위한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학생들은 일찍이 국민학교부터 입시위주교육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 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인 입시위주교육의 풍토를 깨쳐가기 위한 학부모들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계속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고교 교사는 입시위주교육으로 피해받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풀을 뜯어먹을 겨를도 없이 뒤에서 뛰어오는 양떼들이 밀려 앞으로, 앞으로, 뛰지 않으면 안되는 양떼

들의 무리”에 견주어 설명하면서 입시위주의 풍토를 타파하는 데에 학부모들 각자의 깨우침과 이에 기반한 학부모운동이 절실한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인천과 안양지역에서 시작되고 있는 학부모들의 이와같은 교육문제에 대한 진단과 움직임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거론될 사립고교의 입시선발권과 이에 따른 등록금 차등화정책이 우리 교육 전반에 미칠 심각한 파장에 비추어 학부모운동의 방향에 대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정책실장 오성숙)

교육 모니터 모임

컴퓨터에 관한 관심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컴맹’이란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에 맞춰, 이번 가을프로그램 개편때 신설된 ‘생방송 달려라 코바’란 프로그램을 ‘SBS’에서 방송하고 있다. 요즘 TV프로그램을 지켜보

객관적으로 보아도 게임에 몰두한 그 모습이 좋아 보인 않았다. 어른이 보기에 오금이 저릴 정도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프로인데, 아이들이 오죽하겠는가?

끝 화면에 영어자막(GAME OVER 또는 FINISH) 처리로 시선을 집중시켜 마치 전자오락실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제공하는 상품들이 사행심을 조장하며, 그 상품을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게임에 매달려 있어야 하겠는가’란 지적도 있었다.

— ‘생방송 달려라 코바’를 보고 —

시청자 국민학생 대부분, 지나친 상업성 눈쌀

면 생각하게 하는 프로그램 보다는 내용과 형식면에서 쉽고, 가볍게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달려라 코바’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 것 같다.

11월 한달동안 전화 출연한 시청자들을 조사해보니 국민학생이 대부분이다. 중·고생이 몇 명, 간혹 대학생과 성인이 있었지만 어린이 청소년이 차지하는 오락프로그램이었다.

TV화면으로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한 국민학생의 얼굴을 비추주었는데, 그 모습이 정서적으로 불안해 보였고,

컴퓨터와 가까워지려면 게임부터 시작하라는 말이 있지만 굳이 방송전파를 사용하면서까지 컴퓨터 게임 방송을 해야하는 건지, 시청률을 의식해서 너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진정으로 시청자와 컴퓨터를 사귀게 하려는 프로그램이라면 재미있게 컴퓨터와 가까워질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을텐데, 너무 쉽게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다.

(장은숙)

☐ 컴퓨터 하이텔 ‘꿈동산’

“겨울 방학을 지혜롭게 보냅시다”

국민학생부터 중3까지 이용 가능

12월도 성큼. 어느새 아이들 방학이 다가온다. 긴긴 겨울날과 밤을 아이들과 씨름해야 하는 학부모들에게 방학을 지혜롭게 보내는 좋은 방법의 하나로 하이텔 ‘꿈동산’을 소개해 본다.

꿈동산은 지난 92년 만들어진 최초의 어린이 전용 무료 BBS이다. 월 9천9백원의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대신, 국민학생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중학교 3학년은 5월5일까지만 가능, 다른 하이텔 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 이용시간은 평일은 오후2시부터 밤10시까지, 공휴일은 오전6시부터 밤10시까지이다. 가입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통신 등이 있다.

청소년 컴퓨터 통신의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꿈동산에는 학생들이 게시판에 올려놓은 글 가운데 불량한 내용을 골라내는 일, 카운셀링, 주제별 강의 등을 하는 10여분의 현직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운영위원장 성재수 교사(37. 서울 중앙여고)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 음담패설 등을 공공연히 띄워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정도에 따라 주의나 경고를 주고 몇차례 계속되면 ID를 삭제합니다. 간혹 ID를 도용했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자신의 책임이라 엄격히 지도합니다. 아이들이 그런지 ID를 삭제당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평생 하이텔을 이용할 수 없다는 걸 모른다는 게 답답합니다”라고 얘기한다.

꿈동산 가입희망자중 한국PC통신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보내면 학생도 전화국에서 96년까지 하이텔 단말기를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다.

전혀 하이텔을 알지 못하는 주부들과 아이들을 위한 무료 교육도 있다. 압구정동 장기은행 빌딩 8층에 마련된 교육장에서 TV수신카드 등 최신 장비를 갖춘 486PC로 매주 월, 화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신청자 선착순으로 조작, 실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꿈동산 가입은 080-022-1410, 하이텔 단말기 대여문의는 각 전화국번+0000번이며 하이텔 무료교육은 02-513-2200로 문의하면 된다.

(권명자 기자)



학부모 한마당

독자와 함께 하는 '학부모 한마당'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직접 찍은 교육사진이나 4매의 원고를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곳=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14 당일빌딩 301호 학부모신문
 독자한마당 담당자 우편번호 150-046
 전화=02-634-6508, 675-9068 FAX=02-634-4359
 전리안 ID HAKBUMO
 채택 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5년이란 시간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 회원이 된지 5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나는 그동안 참교육운동을 통해 너무 많은 것을 배웠는데 참교육 실천은 얼마나 하고 있나 반성의 시간을 가져본다

여러가지 여건상 함께 나서서 일하지 못함에 죄송함 뿐이다.

참교육 운동을 위해 너무 애쓰는 임원들과 회원들께 정말 수고한다고 박수 치며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아이가 국교에 입학하면서 교육의 많은 문제점을 보고 고민하다가 운 좋게도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를 만났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행운이었다.

그동안 학부모회를 통해서 나 자신은 교육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좀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내 아이의 문제에서 우리 모두의 문제로 보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다.

더우기 학부모회에서 주최하는 숲속 학교와 역사기행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면서 공동체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성장과정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지금은 몸도 키도 엄마보다도 더 크고 마음도 커진 의젓한 중학생이 되어 토요일 학교 중학생모임에 즐겁게 참석한다.

독서토론회와 여행, 그리고 학교 교

육에서 배울 수 없는 다른 학습에서 많은 걸 느끼는 듯 하다.

급고 빠르게 자라 이왕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은 자식을 가진 모든 부모님의 바람이겠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쉽게 말은 하지만 교내에서나 가정에서 학생의 모든 것이 성적순으로 평가되고 있기에 공부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아이를 보면 늘 미안함 뿐이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아이들을 따르게 하고 따르지 못한다고 야단치는 내 모습.

그래서는 안된다고...

더이상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말자고 생각해본다.

우리가 만든 잘못된 제도는 우리 힘으로 바꾸어야 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좀더 자유로움속에서 인간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함을 느끼고,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과제는 꼭 이루어야 한다.

민주적인 교육 속에서 진정 이땅을 사랑하며, 이 땅을 위해 이땅에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참교육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인선 부산〉

또 다른 공부

어두워지도록 5학년이 된 큰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 모든 걸 잊는 아이인지라 별 걱정은 되지 않았다. 대신 이번엔 또 무슨 일로 늦는지 궁금함이 더 컸다. 창박이 완전히 어둡으로 깔린 후 돌아온 아이가 하는 말은 뜻밖이었다.

"오늘 우리반 애들 둘이랑 신문 배달해 불라구 보급소마다 다녔는데 전부 거절당했어. 너무 어려서 안된데."

"신문 배달? 갑자기 왜 그래?"

"내 힘으로 용돈도 벌어보구 옆반에 〇〇도 하는데 쉽다 그랬어. 나두 할수 있단 말이야."

"나중에 해 나중에."

나중에 해 보라는 막연한 대답으로 아이를 달랬다.

다음날, 토요일임에도 아이는 또 늦도록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역시 어두워진후야 돌아와서는

"엄마, 나 신문배달 할 수 있게 됐어. 오늘도 돌아다녔는데 딱 한군데서 허락 받았어. 내일부터 한다. 나 오늘 빨리 자야 돼."

현관을 들어서며부터 설새 없이 얘기했다. 아이가 배달하기로 한 신문은 평일은 오후, 일요일은 새벽에 돌리는 것이라 했다.

나는 걱정이 앞서 이것저것 신문 배달의 어려움을 얘기해 보았다. 그러나 새로운 경험 앞에서 잔뜩 부풀고 들떠있는 아이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애, 너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복지관에서 산수공부하는거 시간 맞출수 있겠어? 하루에 50부씩이나 돌려야 한다면서..."

"충분히 할 수 있어. 있대니까"

아이는 자신만만했다.

"자동차는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 새벽에 특히."

"이쪽 저쪽 살펴보고 내 눈에 자동차가 한대도 안 보일때 건너면 돼. 파란불이라도."

도저히 그만두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평소 이일저일 꾸물대다 밤늦게야 잠자리에 들던 아이가 내일은 일요일이니 아침신문이라며 9시가 되자 서둘러 이불속으로 들어갔다.

"엄마, 꼭 일찍 깨워줘야돼."

몇번씩 당부하면서.

이렇게 시작된 아이의 신문배달 삼일째, 복지관 산수 선생님의 전화로 문제가 생겼다. 아이는 복지관 무단 결석을 했던 것이다. 엄마인 내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학교에서 신문보급소, 집집마다 배달을 마치고 다시 보급소로 가서 배달확인을 받고서야 산수공부를 하러 복지관에 가자니 시간이 뿔리 없었겠지.

신문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와 마주 앉았다. 남편도 함께였다. 거짓말 한 것에 대해 꾸중했다.

"그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신문배달

국민학교 4학년인 큰딸애는 학교에 갔다오면 잠시라도 입을 쉬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참새가 그새 배가 고파서 방아를 찧듯이 오밀조밀 이야기 꽃을 피우는 것이다. 나는 특별히 바쁘거나 신경쓸 일이 없으면 마냥 맞장구도 쳐주면서 들어준다. 사이사이 엄마의 생각과 간혹 물어오는 질문에 답변도 하면서 말이다.

딸애의 이야기 배경은 주로 학교에서의 일이 대부분이다. 여자아이라서 그런지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예민하고 자기 생각도 뚜렷하게 피력한다. 간혹 학급에서 반 아이가 선생님에게 모욕과 창피를 당한 일이 있으면 당사자보다 딸애가 더 속상해 하고 안타까워한다.

그 아이가 불쌍하고 가엾어서 눈물이 나오는 것을 애써 참았다고,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 심했다는 이야기를 마음놓고 해댄다.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온 딸애가 다급하게 신발을 벗으며, 가방을 미쳐 내려놓지 못한 상태에서 무언가 엄마에게 빨리 말하고 싶었나 보다.

"엄마 오늘 우리반에 남자아이 〇〇〇가 퇴학당할뻔 했어요."

자못 말하는 표정이 심각하다.

"국민학교에 퇴학이 어딴어."

하려면 당장 그만뒤."

남편과 나는 아이의 거짓말에 화가 나 큰소리쳤다.

그러나 아이는 신문보급소 측과 한 약속이 있으니 당장 그만둘 수는 없다고 했다.

복지관에서 산수공부를 시작한지 보름째, 신문배달은 3일째, 둘 모두 실패리 그만둘 수 없는 상태였다. 두가지 다 지장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배달하는 신문의 양을 조금 줄 일수 있다면 가능한 일일것 같았다.

배달 첫날 보급소 위치도 알아 돌겸 남편이 찾아가 그곳 책임자와 인사를 나눈 일도 있으니 전화를 해 보기로 했다.

남편을 기억하고 있는 보급소 책임자와의 대화는 의외로 쉽게 풀렸다.

아이가 산수공부얘기는 하지 않아 몰랐으며 배달부수를 조금 줄이고 배달 지역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것이었다. 감사했다.

이제 11살된 아이에겐 산수 공부이상 신문배달의 경험도 큰 공부가 될 것이다. 둘 모두를 그만 두게 하고 싶지 않았던 내 뜻대로, 남편의 뜻대로, 또 아

의아해 하며 대꾸를 하는 내 마음은 궁금중으로 더해졌다.

"엄마, 글썽 개가 친구와 싸우고 심하게 떠들었다고 나오라고 그러더니 선생님이 빨간색 볼펜을 집어서 출석부에 대고 긋는 시늉을 하면서 너 퇴학시켜 버린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고 기분이 아찔했다. 그래서 아이의 표정은 어떠하더냐고 물었더니 잔뜩 겁을 먹고, 고개는 꼭 숙인 채로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더라.

이런 비슷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고 딸애의 입으로부터 전해들은 횡수가 거듭됨에 따라 학부모로서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몇번인가 느꼈었다. 직접 내 아이가 겪은 것은 아니지만 내 기분은 그 이상으로 안 좋았다. 이것은 일을 당한 한 아이의 문제만이 아니다. 모든 아이에게 위기감과 불안을 야기시키는 분위기 조성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해가 되나를 생각해야 한다.

아이들 인성교육을 시키기 이전에 교육자인 선생님들의 인성교육과 정신순화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했다.

〈강승숙 고척동〉



"노는 것은 언제나 즐거워"

〈김혜자 여의도〉

이의 뜻대로 되었다.

일이 잘 해결되어 어제 오늘도 아이는 보급소와 복지관을 모두 들러 어두워지면 집에 온다.

책가방과 도시락 가방을 양쪽 어깨에 메고 아이가 신문배달을 얼마나 오래 할지는 모른다.

힘들어 중도에 포기해도 소중한 경험으로 아이 앞날에 남을 것임엔 틀림없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원으로 물리는 시간에 내 아이는 더 큰 공부를 하고 있다는 확신을 나는 갖는다.

〈송주비 방화동〉

자녀와의 올바른 대화법 ④

올바른 경청을 위한 부모의 태도

지난번에는 대화법의 시작은 문제가 누구의 것이냐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일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지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해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 가르기는 중요하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올바른 경청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잘들어 준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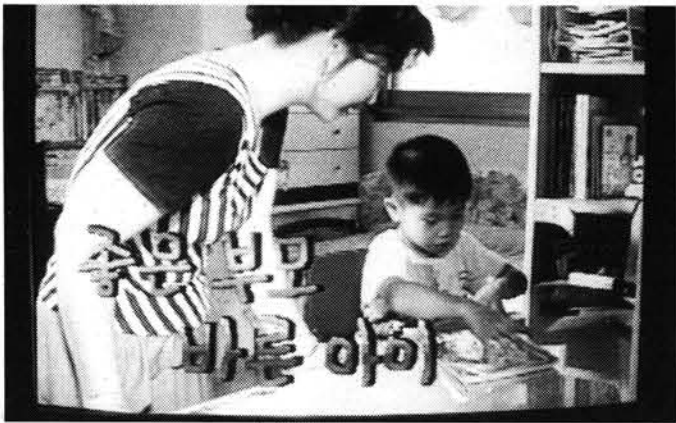
상대방의 느낌이나 생각을 내 잣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한다는 건 상당한 인격의 성숙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언가 좌절이나 분노,

슬픔으로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할 때 그 이야기를 진심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같이 공감하고 수용하면서 제대로 잘 들어주기만 해도 상대방은 큰 도움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속상한 일이나 고민이 있을 때 자신의 문제를 속 시원히 얘기해버리면 우리는 스스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는 것, 또 그 해결 방법까지도 찾아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내 얘기를 잘들어준다는 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의 잠재의식 속에서 자녀란 내가 지도하고 통제하고 훈육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신의 고민이나 문제거리를 부모에게 털어놓을 때 우선 경청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자신의

얘기를 더 많이 함으로써 자녀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가정 국민학교 다니는 아들이 "엄마, 나 학교가기 싫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엄마들은 "학생이 학교를 안가면 어떻게 하니!"하고 야단부터 치게 됩니다. 이 아들



은 어제 친구하고 싸웠거나 숙제를 안해서 선생님에게 야단맞을까봐 걱정이 되는 마음 또는 그 외에 다른 문제가 있어 '학교에 가기 싫다.'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아이의 지금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기 전에 야단부터 치게 되면 아이는 엄마한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도움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 저지 당하게 되어 엄마에게 서운하고 원망의 감정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한두번 쌓이다 보면 아이는 '우리 엄마한테는 얘기해봤자야, 다음 부터는 아무말도 안할거야'하면서 엄마와 답을 쌓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자녀가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는 진지한 마음으로 아이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들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경청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1. 주의 기울이기 :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 전성으로 듣는다면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보고 '그래 이야기 해봐. 무슨 얘기를 해도 엄마는 다 들어줄게.'라는 태도를 보여 줄때 아이는 마음을 다 털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침묵하기 : 아이의 말을 중간에서 끊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해도, 다소 엉뚱한 얘기를 해도 가로막지 말고 우선 들어주어야 합니다. 앞에서

얘기하대로 엄마의 잣대로 '판단'하거나 평가해서 아이의 말을 끊으면 안됩니다.

3. 맞장구 치기 : 아이의 얘기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지금 아이의 감정과 느낌을 받아 주어 아이가 이해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런, 그랬구나.' '그래, 나라도 그렇게 했겠다.' '어유, 얼마나 속 상했을까.' 등 아이의 감정을 내 감정으로 받아들이 줍니다. (감정이입) 이렇게 하면 아이는 신뢰감을 갖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될 것입니다.

4. 말문열기 : 무언가 문제가 있는데도 선뜻 입을 열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 엄마가 적극적으로 아이가 말을 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니?' '엄마한테 할 얘기가 있는 것 같구나.' '그 일에 대해 같이 얘기해 보면 어떨겠니?'하면서 아이의 말문을 띄워 주도록 합니다.

(이정진 PET강사)

미래의 유망직업 (6)

분장사

분장사의 역할은 나이나 분위기, 패션에 맞는 화장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에서부터 연극배우, 광고모델, TV탤런트, 오페라 가수의 얼굴을 이미지와 배역에 걸맞게 재창조해내는 일까지 무척 다양하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분장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탄생하기 때문에 천의 얼굴을 창조해내는 사람이라고 한다.

분장은 화장과는 달리 매우 복잡한 단계를 거쳐 행해지는 예술이다. 실제 분장사의 작업 과정을 보면 결코 간단치가 않다. 먼저 대본이나 시나리오가 나오면 등장인물의 성격, 습관, 시대적 생활상, 무대장치, 의상 등을 분석하고 연출자들의 스타프지나 연기자와의 세세한 대화를 통해 작품전체의 흐름을 충분히 인식하고 배역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분장계획을 세운다.

우리나라에서 화장과 구별되는 본격적인 분장이 시작된 것은 60년대 초였고 70년대가 되면서 뜻있는 사람들이 분장을 전문영역으로 인식하여 도제식으로 전문 분장사를 길러내기 시작했다. 컬러 TV시대가 되자 분장이 높은 질이 요구되었고, 광고업계의 발전에 따라 분장사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었다.

화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장사들은 주로 미용실이나 의상실에서 일하며, 본격적인 무대 분장사는 극단이나 프로덕션에 소속되기도 하고 프리랜서로 뛰기도 하지만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일터는 방송사다. 각 방송사의 분장실 인원은 전문분장사와 미용담당, 가발담당 등을 합해 30여명 정도인데 한 사람이 몇 십명 심지어 몇 백명의 얼굴을 재창조해야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다.

현재 분장사의 수입은 평균 5만-10만 달러를 받고 있는 미국의 분장사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낮은 수준이다. 미용실이나 의상실의 경우 초봉은 월 30만원-35만원 선이고 경력과 기

술이 쌓임에 따라 보수가 오른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4-5년이면 인정을 받게되는데 이때는 월 100만원이 훨씬 넘으며 각자의 능력과 대인관계가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분장사는 섬세하고 꼼꼼한 사람에게 유리한 직업이다. 또 필요한 이미지를 자유자재로 창조해야하기 때문에 창조력이 풍부해야한다. 고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장기법, 이미징 이론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 이해,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일을 정말로 좋아서 하고 즐기는 사람이어야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화나 연극이 발달한 선진외국의 경우 분장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시험을 보는데 자격증에 시험점수가 명기되어 있어 그 사람이 몇점짜리 분장사인지를 금방 드러나는 정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분장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이 없다. 사설학원이나 연구소가 있기는 하나 수료 후 바로 현업으로 연결될 정도로 인정을 받을 곳은 없는 실정이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각 화장품 회사에서 운영하는 뷰티 아카데미나 사설분장학원을 거치는 것과 방송국에서 연구생으로 일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방송사는 워낙 경쟁이 치열한데다 주로 대학 총 학장의 추천을 받은 연극영화과나 미술 특히 조소과 학생들 중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분장분야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아직은 낮은 수준이나 방송 드라마가 대형화되고 사전제작이 이루어지면 방송에서 전문분장사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고, 또한 광고업계의 성장과 독립 프로덕션의 활성화, 종합 유선방송사의 설립등은 전문분장인들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대우도 크게 향상시킬 것이 분명하다.

배명희 기자

“짧고, 재미있고, 정서에 맞을 것!”

“저학년 동화책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쑥쑥고1/우리 나라 동화 모음
바람 도깨비



쑥쑥고2/우리 나라 옛날 이야기
토끼 불알을 만진 노루



쑥쑥고3/세계 동화 모음
초록 여우



쑥쑥고4/세계 옛날 이야기
장난꾸러기 코피트코



몸도 쑥쑥, 마음도 쑥쑥 - 우리교육의 <쑥쑥문고>

저학년 아이들에게 좋은 읽을거리는 우선 재미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글의 내용이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구어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책을 자주 접하게 될 때 아이들의 책 읽는 습관과 더불어 책 읽는 능력은 자연스럽게 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글이 많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학년 아이들에게 읽힐 만한 동화책을 찾는 일이 선생님들에게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좋은 어린이 책을 골라 내고 그것의 보급을 위해 십여 년간을 노력해 온 <어린이도서연구회>가 정성을 다해 저학년을 위한 동화를 찾아 엮었습니다.

어린이도서연구회 역임/각권 3,500원

우리교육

730-1527(총판부)
730-1273(영업부)

학부모, 자녀위한 12월 행사 안내

월례회

겨울방학 프로그램

서울지부

◆중서부지회

〈송년모임〉

·일시:12월13일 10시30분
·장소:학부모회 사무실
·문의:634-6508

〈PET 강좌〉

·일시:12월27일(화) 입문강의.
10시30분~12시
매주 화요일(총8회)
·장소:신촌 농협타워
·참가비:60,000원
·문의:634-6508

◆강서남부지회

〈크리스마스쿠키 만들기와 송년회〉

·일시:12월16일 10시30분
·장소:여숙자씨 댁
·문의:648-3849

〈참교육 학부모 연극단 소집〉

·대상:학부모
·문의:장은숙씨 댁
(448-8421)

마산지부

·일시:12월21일 오후2시
·장소:학부모회 사무실
·문의:0551-48-6264

대구지부

·일시:12월9일 10시
·장소:학부모회 사무실
·문의:053-781-3911

부산지부

〈제3회 한새 어린이학교〉
·일시:12월26일~12월31일
(1박2일 야외캠프)
·장소:부산교대 (경주월드)

·문의:051-247-1795

전주지회

〈하루차집을 겸한 교육노래 공연〉

·일시:12월10일
이른9시~늦은9시
·공연시간:늦은3시~늦은6시
·문의:0652-231-6242

총회

부산지부

·일시:12월15일 오후1시~3시
·장소:성바오로 서원 강당
(대청동 미문화원 맞은편)
·문의:051-247-1795

이리지회

·일시:12월13일
·장소:학부모회 사무실
·안전:임원선출
사업평가 보고
사업계획 수립
·문의:0653-856-0340
0653-53-1750

전주지회

·일시:12월14일
·장소:학부모회 사무실
·문의:0652-231-6242

관동지회

·일시:12월14일
·장소:청소년학회 세미나실
·안전:반가움과 정을 그리고
내년도 계획을!

관동지회

〈탐방·견학놀이〉

1/7 농업박물관 견학
1/14 국립과학교육원 견학
안중근의사 기념관
1/21 방송국견학이나
스케이트장 놀이
·문의:634-6508
·시간:토요일 오전10시
·대상:국민학생
·준비물:약간의 간식
(각자 입장료 지참)

〈열린 사고, 열린 글쓰기〉

12.27 글쓰기 지도방법
12/28 수필, 사설쓰기
·강사:옥명희 선생님
(소화출판사 대표·중3학부모)
·대상:자녀와 어머니

알림

말·언어 장애 무료 검사

말·언어 임상연구소에서는
말·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언어
검사 및 부모상담을 무료로 실
시한다. 대상은 언어 발달 지
체, 말더듬, 발음 장애, 청각
장애, 뇌성마비, 정신지체, 구
개파열, 실어증, 마비성언어 장
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어린이나 성인. 기간은 12월31
일까지

어린이 겨울 환경캠프

·주최:환경운동연합
·기간:12월27일~29일
·장소:강원도 홍천군 환경운동
연합 연수원
·모집대상:국교1~6학년
·참가비:5만8천원
·문의:(02)735-7000 주선희

·참가비:6,000원
(비회원과 자녀)
4,000원(회원과 자녀)

강서남지회

〈독서방과 종이접기 교실〉
·일시:1월3일부터 매주 화, 목
오후1시~2시(독서방)
매주 목요일 오후2시~3
시(종이접기)
·대상:2세~국민학교 6학년
·장소:학부모회 사무실(당산동)
·참가비:3,000원
·신청마감:12월30일
·문의:634-4359

서울지부

〈어린이 방송학교〉
·목적:영상문화의 홍수속에 살

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영상문화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키워주고자 함

·일시:12월22일(목)~24일(토)
·장소:수원 크리스찬 아카데미
하우스 '내일을 위한 집'
·참가비:56,000원
·주최:한국여성민우회
·후원: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문의:634-6508

〈우리아이 적성을 알고싶어요〉

·일시:12월20일 10시30분~12시
·장소:삼성출판사 세미나실
(당산역 하차)
·강사:한국적성연구소
양중국선생님
·문의:634-6508
·참가비:5,000원

TV드라마 바평교실

종합 유선방송의 다채널, 다
매체 시대를 앞두고 올바른 여
성주의 시각으로 TV드라마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위한 강좌.
·일시:94년 12월15일~95년 3월
2일
매주 목요일 7시~10시
·장소:여성문화예술기획 강의실
·참가비:10만원(신입사원 가입
비 1만원 별도)

·문의:여성문화 예술기획
변재란
762-6048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일시:12월10일 오후5시
·장소:한양대학교 올림피아체육관
·내용:여섯번째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주최: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자연환경을 지킵시다! -재생공책

·자연은 나무를, 나무는 종이를, 종이는 문화를
그리고 문화는 사람을 만듭니다.

가격:10권 2000원 / 문의:634-4359

자연환경을 지킵시다! -천연세제

·천연염 - 고무장갑없이 장시간 사용에도 피부질환을 유발하지 않는 무독성
천연세제(1,800원)

·샘이랑 - 깨끗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가꾸는 전신 물비누(4,800원)

★ 각권 값 4,000원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참된 친구
산하어린이 시리즈

산하어린이가 한국 아동문학의 큰 맥을 잇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권해주십시오

전국의 많은 학교와 선생님께서 '학급 문고'와 '독후감 쓰기'
글감으로 자신있게 추천하는 '산하어린이' 71권은 그동안 서울 YMCA ·
서울 YWCA · 문화체육부 · 어린이도서연구회 · 국립중앙도서관 · 마산 YWCA ·
좋은 책 만들기운동 연합회 · 창원 YWCA · 군산 YMCA · 어린이 문화
진흥회 · 마산 YWCA · 부산 · YWCA 등 많은 단체로부터
우수 아동도서로 선정된 권위있는 책입니다.

▶ 생활이야기

10. 물에서 하는 숙제 이오덕
11. 차돌이는 환경박사 김현아
16. 너에게만 보여 줄게 오민진
17. 비오는 날 일하는 소 한 교실 어린이
18. 공부하는 왜 해야 하는 한 교실 어린이
29. 통일한 참 없다 동시·동화
34. 혼자서 큰 아이 어린이 문학교육연구소
35. 날마다 큰 아이 어린이 문학교육연구소
36. 민요기행 신정림
41. 나뭇잎 교실 윤태규
51. 천연기념물 탐험대 나은경

61. 속담 하나 이야기 하나 임덕연

▶ 과학이야기

38. 39. 40. 과학을 빛낸 사람들 1·2·3 유한준
42. 43. 재미있는 동물이야기 1·2 오정영
62. 끈질기게 물고 놓아진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63. 끊임없이 파고든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64. 악학같이 달라붙은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 역사이야기
2. 연오랑 세오녀 조호성
3. 4. 5. 임궏정과 임궏형제들 1·2·3 김우익
31. 서울 600년 이야기 김근태

50. 흥미로운 국보 여행 배봉기

52. 53. 꼬마단군 1·2 정우상
58. 59. 60. 소년 독립군 주홍이 1·2·3 김정민
68. 일제강점기 국악이야기 들어 보세 김태근

▶ 인물이야기

7. 전태일 위기환
33. 윤동주 정진규
49. 신채호 김서정
▶ 창작동화
1. 참나무 선생님 박성규
6. 서울로 간 허수아비 윤기환

8. 어우어 어우어 뭐 하나 김 목

9. 허느님의 눈물 권정생
12. 해가 뜨지 않는 마을 윤기환
13. 산나는 교실 윤태규
14. 바보와 바보 박성규
15. 생명이 들려 준 이야기 위기환
19. 말꼬마이 이상권
20. 허수아비 허수환 이준연
21. 상계동 아이들 노정심
22. 따뜻한 사람 박성규
23. 키다리 풍선 장수 아저씨 유재용, 이현주 외
24. 도둑 마을 장문식

25. 동수의 세번째 비밀 유순하

27. 아기 장수 조호성
28. 고독한 가수와 꼬마배우 이상권
30. 설마할 아이들 신승환
32. 아이구나 호랑이 윤태규
37. 어리석은 독재자 윤기환
44. 친구 없이는 못살아 이재복
45. 다 타고난 재주가 있지요 이재복
46. 작다고 칼보다 큰코 다쳐요 이재복
47. 이 고집쟁이 좀 보세요 이재복
48. 김창지의 매주풍 이재복
54. 팔각할머니와 늑대 지동환

55. 사장이 된 풀벌레장수 박성규

56. 집을 나간 소년 현 덕
57. 허느님이 우리 열집에 살고 있네요 권정생
65. 피리 부는 소년 이주홍
66. 67. 서울에 온 어린 왕자 1·2 오봉옥
69. 느릅굴 아이들 임길래
70. 71. 큰소나무 1·2 강정규

도서출판 산하

121 012 서울 마포구 아현2동 338 10
전화 392 7641 팩스 313 2582